



## 그분과 함께하는 이야기 (대만11호)

이섬김, 황사랑, 은우, 성안, 세희

32호 2022년 9월 21일



카톡 아이디	1002lhh	후원	KEB하나은행 9900-147-05200 예금주: KPM 이섬김
이메일	justfaith74@naver.com		

사진1, 안식월 기간 처음으로 방문했던 신평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안이 세희와 함께  
사진2, 안식월 기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용산교회 목사님과 목사님 아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저는 한국에서의 약 6개월간의 안식월을 마치고 9월 20일 어제 대만으로 복귀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은 둘째 성안이의 대학입시 관계로 11월 말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

4월 9일에 안식월을 시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한달만 쉬고 교회 방문 하면 좋겠습니다" 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5월 둘째 주 주일부터 대만 복귀전 두 주를 제외하고 거의 매주 교회를 방문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며 주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말씀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는 때 참 많은 감사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귀한 교회들을 방문하게 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지금은 하나님이 저의 길을 여시는 시간이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시기도 하시고 달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도와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어느 토요일 다음 날 교회 방문을 위해 "하나님 내일 예배 시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내가 예배 말씀 전하는 것이 내 일인가? 도와 달라는 말은 내가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의 일로, 나를 위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의 일을 내일이라 생각하고 짊어졌던 무게가 많이 가벼워짐을 느끼며 동시에 아직도 내가 많은 부분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격리가 끝이 나면 새로운 사역지인 충효교회로 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이 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앞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저는 종으로 따라 가면 될 것을 고백하며 자유함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8-30)

###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안식월 동안 또 하나의 큰 과제는 새롭게 맡게될 충효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월이 끝나기 한 달 정도 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딤후2: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가 전도  
를 가르치고 그들로 전도를 하게 하며, 제가 그들에게 새신자 양육을 하고 그들로 다른 사람들  
에게 새신자 양육을 하게 하며, 제가 그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고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게 하며, 제가 그들에게 말씀 묵상방법을 가르치고 그들로 말씀을 나누게 해서 제자  
가 제자를 낳는 비전을 그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소  
명을 받을 때 언제든지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제자공동체, 선교 공동체된 교회  
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에 올 때 주셨던 비전 ‘선교사를 파송하라’가 함께 떠오르며 이 일들을 하  
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 눈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  
기를 원합니다.

#### 저희 가족은...

항암치료를 계속 하였던 아버지의 몸이 갑자기 많이 쇠약해 지셨습니다. 드시는 것도 걷는  
것도 너무 어렵고 압으로 인한 통증에 기존에 드시던 진통제의 3배를 드셔도 신음하시며 고통  
하십니다. 제가 대만 복귀를 연기해야 하나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아들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며 보내시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대만으로 복귀 하였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길 기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우는 은혜로 대학 1학년 1학기를 잘 보냈고 학업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둘  
째 성안이는 연기연극학과를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내 세희는 초  
등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교회 적응을 잘해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있고 11월에 아내와 함께 대  
만으로 돌아와 현지 중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아내 황사랑 선교사는 약간의 우울증과 고혈압  
그리고 대사이상증후군이 발견되어 치료 및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도 고지혈증이 발견되어 약  
을 먹고 있습니다.

#### 기도해 주십시오!!!

- 저희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새롭게 시작하는 대만 현지인 교회인 충효교회 담임사역을 통해 주신 비전인 제자공동체,  
선교공동체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더 나아가 대만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선교 부흥을 일으  
키소서
- 저희 아이들이 학업과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게 하시고 둘째 성안이의 대학 수시와 막내 세희의 대만 학교 적응가운데 은혜를 배풀어  
주소서
- 저와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  
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되게 하소서